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6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3(1) 음운의 변동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음운의 변동’ 단원이 너무 복잡하고 공부해야 할 게 많아서 어려워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단원에서는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가 평소 접할 수 있는 단어에 음운 변동을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음운 변동이 어떠한 음운 환경에서 나타나는지도 알아야겠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의 음운 변동이 각각 어떠한 단어에서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각각 어떤 음운 변동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고,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이야. 첨가는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지.



교체에는 비음화,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된소리되기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요!

잘 알고 있구나! 비음화는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하고,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하지.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에서 7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하는 현상이고,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ㅟ’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야. 마지막으로 된소리되기는 특정 음운 환경에서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인 ‘ㄱ, ㄷ, ㅂ, ㅅ, ㅈ’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지.



AI 직전 보강 확인



‘음운의 변동’ 단원이 너무 복잡하고 공부해야 할 게 많아서 어려워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단원에서는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가 평소 접할 수 있는 단어에 음운 변동을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음운 변동이 어떠한 음운 환경에서 나타나는지도 알아야겠지. __, __, __, __, 네 가지의 음운 변동이 각각 어떠한 단어에서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각각 어떤 음운 변동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__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__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고, __은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__ 현상이야. __는 두 음운 사이에 __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__은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__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지.



교체에는 __, __, __, __, __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요!

잘 알고 있구나! 비음화는 ‘__, __, __’이 비음 ‘__, __’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__, __, __’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하고, 유음화는 ‘__’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__’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__’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하지.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에서 7개 자음 ‘__, __, __, __, __, __, __’만 발음하는 현상이고, 구개음화는 끝소리 ‘__, __’이 모음 ‘|’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__, __’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야. 마지막으로 된소리되기는 특정 음운 환경에서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인 ‘ㄱ, ㄷ, ㅂ, ㅅ, ㅈ’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다른 음운 변동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6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3(1) 음운의 변동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우리말은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래 모습 그대로 소리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현상(‘음운 변동’의 개념)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음운의 변동이 발생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거나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까닭: 발음의 편리성) 일어난다. 음운 변동과 발음, 표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면 음운 변동을 이해해야 한다.(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까닭)

1 비음화와 유음화(비음화와 유음화 모두 조음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이러한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굽는’과 ‘원리’를 발음해 보고,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고기를 잘 굽는([굽는], ‘굽는[굽는]’의 음운 변동 양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법이 있니?”

“그럼. 나만의 특별한 원리([월리])가 있지.”

비음화

‘굽는’을 소리 내어 말하면 ‘굽’의 ‘ㅂ’이 ‘ㅁ’으로 바뀌어 [굼:는]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ㄱ, ㄷ, ㅂ’이 비음(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로 ㄴ, ㅁ, ㅇ이 있음) ‘ㄴ,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비음화’의 개념)을 비음화라고 한다.

유음화

‘원리’를 소리 내어 말하면 ‘원’의 ‘ㄴ’이 ‘ㄹ’로 바뀌어 [월리]로 발음된다. 이처럼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유음화’의 개념)을 유음화라고 한다.

1.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써 보자.(단어와 발음을 보고 그 음운 변동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단어 중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밤물 (이갑문[이갑문])	[밤물]	ㅂ + ㅁ → ㅁ + ㅁ
듣는다 (받는다[반는다], 생겼는데[생견는데])	[듣는다]	(ㅊ) + ㄴ → (ㄴ) + ㄴ
국민 (곽민지[광민지], 최익명[최잉명])	[국민]	(ㄱ) + (ㅁ) → (ㅇ) + (ㅁ)

2.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써 보자. (예시 단어를 보고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논리	[놀리]	ㄴ + ㄹ → ㄹ + ㄹ
훈련	[훈련]	(ㄴ) + ㄹ → (ㄹ) + ㄹ
물놀이	[물로리]	ㄹ + (ㄴ) → ㄹ + (ㄹ)
실내화	[실래화]	(ㄹ) + (ㄴ) → (ㄹ) + (ㄹ)

3. 다음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해 보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과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해 보자. (해당 단어를 선지로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 3월 - 박물관 관람 5월 - 백마강에서 캠핑 12월 - 한라산 등반	→	비음화
		박물관[방물관], 백마강[뱅마강]
	→	유음화
		관람[관람], 한라산[할라산]

2 구개음화

다음 대화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같이’와 ‘같은’을 발음해 보자.

“학교 같이([가치]) 가자.”

“난 좋아.”

“지난번이랑 같은([가튼]) 길로 가면 어때?”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구개음화’의 개념,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같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하지만 ‘같은’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가튼]으로 발음한다. ‘ㄷ, ㅌ’보다 ‘ㅈ, ㅊ’이 모음 ‘ㅣ’와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 나므로, 소리 나는 위치를 옮겨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까닭) 일어나는 현상이다.

3 된소리되기

다음 차림표를 읽어보고,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탐구해 보자.

• 막국수

• 국밥([국빔])

• 불고기 덮밥

“오늘은 막국수([막국수])를 먹어야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된소리되기’의 개념)]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막국수[막국수]’나 ‘덮밥[덤편]’처럼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①)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고[안 : 꼬]’처럼 어간이 ‘ㄴ, ㄹ’으로 끝나는 용언 뒤(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②)에서도 나타난다. 또 ‘발달(發達)[발딸]’처럼

럼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③)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 거야[갈꺼야], 갈 데가[갈때가] 없다’처럼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④)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음운 환경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4.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구개음화 현상을 탐구해 보자.

①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고,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써 보자.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굳이	[구지]	ㄷ + ㅣ → (ㅈ) + ㅣ (해돋이[해도지], 미닫이[미다지], 가을걷이[가을거지])
여닫이	[여다지]	
밭이	[바치]	ㅌ + ㅣ → (ㅊ) + ㅣ (끝이[꼬치], 붙이다[부치다], 같이[가치], 벌이[버치])
쇠붙이	[쇠부치]	

② 다음 단어 중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에 표시를 해 보자.

높낮이	해돋이	마디
-----	-----	----

5.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해당하는 된소리되기 조건에 연결해 보자.

(가) • 학교[<u>학교</u>]에 일찍 갔다. • 저녁 밥상[<u>밥쌍</u>]이 푸짐하다.
(나) • <u>신발을 신고</u> [<u>신교</u>] 들어와.(‘경찰에 신고[<u>신고</u>]를 했다.’의 ‘신고’와 발음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눈을 감고[<u>감교</u>] 소원을 빌었다.
(다) • 연습을 하면 실수[<u>실쑤</u>]를 줄일 수 있어. • 눈빛에 열정[<u>열쨍</u>]이 가득하다.
(라) • 내일 영화를 볼 거야[<u>볼꺼야</u>]. • 힘들어서 더는 갈 수[<u>갈쑤</u>] 없어.

① ‘ㄴ, ㄹ’으로 발음하는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오는 경우
②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ㄷ, ㅅ, ㅈ’이 오는 경우
③ ‘ㄱ, ㄷ, ㅂ’으로 발음하는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
④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

(가) - ③ / (나) - ① / (다) - ② / (라) - ④

4 다음 법칙(두음 법칙이 나타나는 단어를 보고 교체 현상과 탈락 현상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두음 법칙에 따라 적절하게 표기된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자 ‘년(年)’이 위치에 따라 어떻게 소리 나는지 탐구해 보자.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일부 음운이 소리 나는 것을 꺼리는 현상(‘두음 법칙’의 개념)이다. 한자음 ‘랴, 려, 레, 료, 류, 리’와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과 ‘ㄴ’이 탈락(‘두음법칙’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①)하여 각각 [아, 여, 예, 요, 유, 이]와 [여, 요, 유, 이]로 소리 나며, 이는 표기에도 반영된다. 그리고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나, 내, 노, 뇌, 누, 느]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두음법칙'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②)도 두음 법칙에 해당한다. 두음 법칙은 '연세'처럼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만 나타나며,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조건) '소년'처럼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두음 법칙의 대상이 되는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았을 경우에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음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6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3(1) 음운의 변동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우리말은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래 모습 그대로 소리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현상(‘____’의 개념)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음운의 변동이 발생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거나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____ : 발음의 ____) 일어난다. 음운 변동과 발음, 표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면 음운 변동을 이해해야 한다.(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까닭)

1 비음화와 유음화(비음화와 유음화 모두 조음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이러한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굽는’과 ‘원리’를 발음해 보고,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고기를 잘 굽는([____], ‘굽는[굽는]’의 음운 변동 양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법이 있니?”

“그럼. 나만의 특별한 원리([____])가 있지.”

비음화

‘굽는’을 소리 내어 말하면 ‘굽’의 ‘ㅂ’이 ‘ㅃ’으로 바뀌어 [굽:는]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ㄱ, ㄷ, ㅂ’이 비음(____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로 __, __, __이 있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____’의 개념)을 비음화라고 한다.

유음화

‘원리’를 소리 내어 말하면 ‘원’의 ‘ㄴ’이 ‘ㄹ’로 바뀌어 [월리]로 발음된다. 이처럼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____’의 개념)을 유음화라고 한다.

1.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써 보자.(단어와 발음을 보고 그 음운 변동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단어 중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밥물 (이감문[이감문])	[밤물]	ㅂ + ㅁ → ㅃ + ㅁ
듣는다 (받는다[반다], 생겼는데[생겼는데])	[____]	(ㅊ) + ㄴ → (ㄴ) + ㄴ
국민 (곽민지[광민지], 최익명[최익명])	[____]	(ㄱ) + (ㅁ) → (ㅇ) + (ㅁ)

2.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써 보자.(예시 단어를 보고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논리	[놀리]	ㄴ + ㄹ → ㄹ + ㄹ
훈련	[____]	(ㄴ) + ㄹ → (ㄹ) + ㄹ
물놀이	[____]	ㄹ + (ㄴ) → ㄹ + (ㄹ)
실내화	[____]	(ㄹ) + (ㄴ) → (ㄹ) + (ㄹ)

3. 다음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해 보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과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해 보자.**(해당 단어를 선지로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 3월 - 박물관 <u>관람</u> 5월 - 백마강에서 <u>캠핑</u> 12월 - <u>한라산</u> 등반	→	비음화
		박물관[____], 백마강[____]
	→	유음화
		관람[____], 한라산[____]

2 구개음화

다음 대화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같이’와 ‘같은’을 발음해 보자.

“학교 같이([____]) 가자.”

“난 좋아.”

“지난번이랑 같은([____]) 길로 가면 어때?”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____’의 개념,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같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하지만 ‘같은’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가튼]으로 발음한다. ‘ㄷ, ㅌ’보다 ‘ㅈ, ㅊ’이 모음 ‘ㅣ’와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 나므로, 소리 나는 위치를 옮겨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까닭) 일어나는 현상이다.

3 된소리되기

다음 차림표를 읽어보고,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탐구해 보자.

• 막국수

• 국밥([____])

• 불고기 덮밥

“오늘은 막국수([____])를 먹어야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____’의 개념)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막국수**[막꺾국수]’나 ‘**덮밥**[덤편]’처럼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①)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고[안 : 께]’처럼 **어간이 ‘ㄴ, ㅁ’으로 끝나는 용언 뒤**(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②)에서도 나타난다. 또 ‘발달(發達)[발딸]’처럼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③)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 거야[갈꺼야], 갈 데가[갈떼가] 없다’처럼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된소리되

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④)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음운 환경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4.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구개음화 현상을 탐구해 보자.

①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고,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써 보자.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굳이	[구지]	ㄷ + ㅣ → (ㅈ) + ㅣ
여닫이	[_____]	(해돋이[_____], 미닫이[_____], 가을걷이[_____])
밭이	[_____]	ㅌ + ㅣ → (ㅊ) + ㅣ
쇠붙이	[_____]	(끝이[_____], 붙이다[_____], 같이[_____], 별이[_____])

② 다음 단어 중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에 표시를 해 보자.

높낮이	해돋이	마디
-----	-----	----

5.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해당하는 된소리되기 조건에 연결해 보자.

(가) • 학교[<u>학교</u>]에 일찍 갔다. • 저녁 밥상[_____]이 푸짐하다.
(나) • 신발을 신고[_____] 들어와.(경찰에 신고 [신고]를 했다.'의 '신고'와 발음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 제될 수 있습니다.) • 눈을 감고[_____] 소원을 빌었다.
(다) • 연습을 하면 실수[_____]를 줄일 수 있어. • 눈빛에 열정[_____]이 가득하다.
(라) • 내일 영화를 볼 거야[_____]. • 힘들어서 더는 갈 수[_____] 없어.

① 'ㄴ, ㄹ'으로 발음하는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 미가 오는 경우
②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ㄷ, ㅅ, ㅈ'이 오는 경우
③ 'ㄱ, ㄷ, ㅂ'으로 발음하는 받침 뒤 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
④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

(가) - ③ / (나) - ① / (다) - ② / (라) - ④

4 다음 법칙(두음 법칙이 나타나는 단어를 보고 교체 현상과 탈락 현상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두음 법칙에 따라 적절하게 표기된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자 '년(年)'이 위치에 따라 어떻게 소리 나는지 탐구해 보자.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일부 음운이 소리 나는 것을 꺼리는 현상('_____ '의 개념)이다.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와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과 'ㄴ'이 탈락('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①)하여 각각 [야, 여, 예, 요, 유, 이]와 [여, 요, 유, 이]로 소리 나며, 이는 표기에도 반영된다. 그리고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나, 내, 노, 뉘, 누, 느]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②)도 두음 법칙에 해당한다. 두음 법칙은 ‘연세’처럼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만 나타나며,(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조건) ‘소년’처럼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두음 법칙의 대상이 되는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았을 경우에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음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은행포럼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6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3(1) 음운의 변동 내신 암기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음운의 변동

음운의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유음화, 구개음화 , 된소리되기 , 자음군 단순화 ※ 음운의 동화 : 인접한 두 음운이 서로 닮아 소리 나는 현상
음운의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발음되는 현상 예) 거센소리되기
음운의 탈락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않 는 현상 예) — 탈락, ㄹ 탈락, ㅎ 탈락
음운의 첨가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예) 반모음 첨가, ㄴ 첨가

2. 비음화

개념	받침 'ㄱ'(ㄱ , ㅋ , ㆁ , ㄹ), 'ㄷ'(ㄷ , ㅌ , ㄴ , ㄹ), 'ㄴ'(ㄴ , ㄹ , ㄴ , ㄹ)은 'ㄴ', 'ㄹ' 앞에서 [ㅇ] , [ㄷ] , [ㄹ] 으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먹는[멍 는], 짓는[진 : 는], 국물[궁 물], 옷맵시[온 맵씨], 잡는[잡 는], 깎는[깡 는], 흥만[흥 만], 단는[단 는], 앞마당[암 마당]

3. 유음화

개념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 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1) 난로[날 : 로] 대관령[대 : 관령], 신라[실 라] 천리[철 리] 광한루[광 : 할루] (2) 칼날[칼 랄], 할는지[할 른지]

*예외

개념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 으로 발음함. 예) 의견란[의 : 견단] 결단력[결 판력] 상견례[상 견례] 입원료[이 원료] 임진란[임 : 진단] 공권력[공 권력] 횡단로[횡 단로] 구근류[구 근류] 생산량[생 산량]
----	---

4. 구개음화

개념	받침 'ㄷ', 'ㄷ(ㄹ)'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ㅑ'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ㅓ] , [ㅗ] 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현상
예시	같이[가 치], 굳이[구 지], 발이[바 치], 여닫이[여 다지]

TEST 1단계

1. 음운의 변동

음운의 교체	어떤 음운이 □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음절의 □소리 규칙, □음화, 유음화, 구□음화, □소리되기, 자음군단순화 ※ 음운의 □화: □접한 두 음운이 서로 닮아 소리 나는 현상
음운의 축약	두 개의 음운이 □나로 □쳐져 발음되는 현상 예) 거센소리되기
음운의 탈락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는 현상 예) — 탈락, ㄹ 탈락, ㅎ 탈락
음운의 첨가	두 음운 사이에 □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예) 반모음 첨가, ㄴ 첨가

2. 비음화

개념	받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ㅌ, ㄴ, ㄹ, ㅂ, ㅅ, ㅈ, ㅊ, ㅌ, ㅎ), □(ㅍ, ㅊ, ㅌ, ㅍ)'은 'ㄴ, ㄹ' 앞에서 [□, □, □]으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먹는[□는], 짓는[□ : 는], 국물[□물], 옷맵시[□맵씨], 잡는[□는], 깎는[□는], 흙만[□만], 달는[□는], 앞마당[□마당]

3. 유음화

개념	'□'은 '□'의 앞이나 뒤에서 [□]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1) 난로[날 : 로] 대관령[대 : 관령], 신라[□라] 천리[□리] 광한루[광 : 할루] (2) 칼날[□랄], 할는지[할른지]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을 [□]으로 발음함. 예) 의견란[의 : 건□] 결단력[결판□] 상견례[상견□] 입원료[이원□] 임진란[임 : 진□] 공권력[공권□] 횡단로[횡단□] 구근류[구근□] 생산량[생산□]
--

4. 구개음화

개념	받침 '□,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 □]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현상
예시	같이[가□], 굳이[구□], 발이[바□], 여닫이[여□지]

TEST 2단계

1. 음운의 변동

음운의 교체	어떤 음운이 [ㄷ ㄹ]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음절의 [ㄱ ㅅ ㄹ] 규칙, [ㅂ ㅅ ㅎ], 유음화, [ㄱ ㄱ ㅅ ㅎ], 자음군단순화 ※ 음운의 [ㄷ ㅎ]: [ㅅ ㅈ ㅎ] 두 음운이 서로 닮아 소리 나는 현상
음운의 축약	두 개의 음운이 [ㅎ ㄴ]로 [ㅎ ㅈ] 발음되는 현상 예) 거센소리되기
음운의 탈락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ㅇ ㄴ] 현상 예) — 탈락, ㄹ 탈락, ㅎ 탈락
음운의 첨가	두 음운 사이에 [ㅅ ㄹ ㅇ]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예) 반모음 첨가, ㄴ 첨가

2. 비음화

개념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ㅗ, ㅛ, ㅜ, ㅠ)'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먹는[ㄹ ㄴ], 짓는[ㅈ ㄴ], 국물[ㄱ ㄹ], 옷맵시[ㅇ ㄹ ㅅ], 잡는[ㅈ ㄴ], 깎는[ㄱ ㄴ], 흙만[ㅎ ㄹ], 단는[단는], 앞마당[암마당]

3. 유음화

개념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1) 난로[날 : 로] 대관령[대 : 괄령], 신라[ㅅ ㄹ] 천리[ㅈ ㄹ] 광한루[광 : 할루] (2) 칼날[ㄱ ㄹ], 할는지[할른지]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함. 예) 의견란[ㅇ ㄱ ㄴ] 결단력[ㄱ ㄸ ㄴ] 상견례[ㅅ ㄱ ㄴ] 임원료[ㅇ ㅂ ㄴ] 임진란[ㅇ ㅈ ㄴ] 공권력[ㄱ ㄱ ㄴ] 횡단로[ㅎ ㄷ ㄴ] 구근류[ㄱ ㄱ ㄴ] 생산량[ㅅ ㅅ ㄴ]
--

4. 구개음화

개념	받침 'ㄷ, ㅌ(ㄹ)'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현상
예시	같이[ㄱ ㅊ], 굳이[ㄱ ㅈ], 발이[ㅂ ㅊ], 여닫이[ㅇ ㄷ ㅈ]

TEST 3단계

1. 음운의 변동

음운의 교체	어떤 음운이 □□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음절의 □□□ 규칙, □□□, 유음화, □□□□, □□□□□, 자음군단순화 ※ 음운의 □□: □□□ 두 음운이 서로 닮아 소리 나는 현상
음운의 축약	두 개의 음운이 □□로 □□□ 발음되는 현상 예) 거센소리되기
음운의 탈락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 현상 예) — 탈락, ㄹ 탈락, ㅎ 탈락
음운의 첨가	두 음운 사이에 □□□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예) 반모음 첨가, ㄴ 첨가

2. 비음화

개념	받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ㅌ, ㄴ, ㄷ, ㅌ, ㄴ)'은 'ㄴ, ㄹ' 앞에서 [□, □, □]으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먹는[□□], 짓는[□□], 국물[□□], 옷맵시[□□□], 잡는[□□], 깎는[□□], 흙만[□□], 달는[단는], 앞마당[암마당]

3. 유음화

개념	'□'은 '□'의 앞이나 뒤에서 [□]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1) 난로[날 : 로] 대관령[대 : 관령], 신라[□□] 천리[□□] 광한루[광 : 할루] (2) 칼날[□□], 할는지[할른지]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을 [□]으로 발음함. 예) 의견란[□□□] 결단력[□□□] 상견례[□□□] 입원료[□□□] 임진란[□□□] 공권력[□□□] 횡단로[□□□] 구근류[□□□] 생산량[□□□]
--

4. 구개음화

개념	받침 '□, □(ㅈ)'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 □]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현상
예시	같이[□□], 굳이[□□], 발이[□□], 여닫이[□□□]

TEST 4단계

1. 음운의 변동

음운의 교체	어떤 음운이 ____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음절의 ____ 규칙, ____, 유음화, ____, ____, 자음군 단순화 ※ 음운의 ____: ____ 두 음운이 서로 닮아 소리 나는 현상
음운의 축약	두 개의 음운이 ____로 ____ 발음되는 현상 예) 거센소리되기
음운의 탈락	원래 있던 음운 하나가 발음되지 ____ 현상 예) — 탈락, ㄹ 탈락, ㅎ 탈락
음운의 첨가	두 음운 사이에 ____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예) 반모음 첨가, ㄴ 첨가

2. 비음화

개념	받침 ‘__ (ㄱ, ㅋ, ㆁ, ㄷ), __ (ㅅ, ㅆ, ㅈ, ㅊ, ㅌ, ㅎ), __ (ㅍ, ㅂ, ㅅ, ㅈ)’은 ‘ㄴ, ㄹ’ 앞에서 [__, __, __]으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먹는[____], 짓는[____], 국물[____], 옷맵시[____], 잡는[____], 깎는[____], 흙만[____], 닫는[닫는], 앞마당[암마당]

3. 유음화

개념	‘__’은 ‘__’의 앞이나 뒤에서 [__]로 발음하는 현상
예시	(1) 난로[날 : 로] 대관령[대 : 관령], 신라[____] 천리[____] 광한루[광 : 할루] (2) 칼날[____], 할는지[할른지]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__’을 [__]으로 발음함. 예) 의견란[____] 결단력[____] 상견례[____] 입원료[____] 임진란[____] 공권력[____] 횡단로[____] 구근류[____] 생산량[____]

4. 구개음화

개념	받침 ‘__, __ (ㄹ)’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__’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__, __]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현상
예시	같이[____], 굳이[____], 발이[____], 여닫이[____]

O / X 문제

【1~10】 「음운의 변동」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0. ‘생산량’의 발음에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며 [생살량]으로 발음해야 한다. (O / X)

1.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O / X)

2. 음운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거나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O / X)

3. ‘원리’의 발음은 [월리]이며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이다. (O / X)

4. 구개음화는 ‘ㄷ, ㅌ’이 모음 ‘ㅣ’ 또는 반모음 ‘ㅈ’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를 만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O / X)

5. ‘뉘뉘’는 [뉘뉘]으로 발음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O / X)

6. ‘볼 거야’의 발음은 [볼꺼야]이며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이어지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 (O / X)

7. ‘라디오’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발생하지 않는다. (O / X)

8. ‘놓지’는 [노치]로 발음하며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O / X)

9. ‘깨끗한’의 발음은 [깨끄탄]이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 (O / X)

1. O 2. O 3. X 4. X 5. O 6. O 7. O 8. X
9. O 10. X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6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3(1) 음운의 변동 지문 분석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우리말은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래 모습 그대로 소리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거나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음운 변동과 발음, 표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면 음운 변동을 이해해야 한다.

1 비음화와 유음화

다음 대화에서 ‘굽는’과 ‘원리’를 발음해 보고,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고기를 잘 굽는 비법이 있니?”

“그럼. 나만의 특별한 원리가 있지.”

비음화

‘굽는’을 소리 내어 말하면 ‘굽’의 ‘ㅂ’이 ‘ㅁ’으로 바뀌어 [굽^ㅁ는]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유음화

‘원리’를 소리 내어 말하면 ‘원’의 ‘ㄴ’이 ‘ㄹ’로 바뀌어 [원^ㄹ리]로 발음된다. 이처럼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1.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써 보자.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밥물	[밤물]	ㅂ + ㅁ → ㅁ + ㅁ
듣는다	[]	() + ㄴ → () + ㄴ
국민	[]	() + () → () + ()

2.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면서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써 보자.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논리	[논리]	ㄴ + ㄹ → ㄹ + ㄹ
훈련	[]	() + ㄹ → () + ㄹ
물놀이	[]	ㄹ + () → ㄹ + ()
실내화	[]	() + () → () + ()

3. 다음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해 보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과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해 보자.

<여행 계획> 3월 - 박물관 관람 5월 - 백마강에서 캠핑 12월 - 한라산 등반	→	비음화
	→	유음화

2 구개음화

다음 대화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같이’와 ‘같은’을 발음해 보자.

“학교 같이 가자.”

“난 좋아.”

“지난번이랑 같은 길로 가면 어때?”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ㄲ, ㅋ’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가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하지만 ‘같은’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

(가) • 학교[학교]에 일찍 갔다. • 저녁 밥상[]이 푸짐하다.
(나) • 신발을 신고[] 들어와. •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다) • 연습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 • 눈빛에 열정[]이 가득하다.
(라) • 내일 영화를 볼 거야[]. • 힘들어서 더는 갈 수[] 없어.

① ‘ㄴ, ㄹ’으로 발음하는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오는 경우
②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ㄷ, ㅅ, ㅈ’이 오는 경우
③ ‘ㄱ, ㄷ, ㅂ’으로 발음하는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
④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

4
 두음 법칙

한자 ‘년(年)’이 위치에 따라 어떻게 소리 나는지 탐구해 보자.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일부 음운이 소리 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와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과 ‘ㄴ’이 탈락하여 각각 [야, 여, 예, 요, 유, 이]와 [여, 요, 유, 이]로 소리 나며, 이는 표기에도 반영된다. 그리고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나, 내, 노, 뵤, 누, 느]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도 두음 법칙에 해당한다. 두음 법칙은 ‘연세’처럼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만 나타나며, ‘소년’처럼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지문

1. 다음 규칙을 참고하여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탐구해 보자.

국어에서는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자음만을 발음한다. 이 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일곱 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하는데, 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① 다음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써 보자.

밖[] 낮[] 옷[] 무릎[]

부엌[] 꽃[] 발[]

② <보기>와 같이 제시한 단어가 소리 나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

<보기>
낮잠 → [낮잠]→[날잠]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된소리되기

㉠ 덮개 → [] → []

→

㉡ 뒹는 → [] → []

→

㉢ 깨끗한 → [] → []

→

2. 다음 발표 원고를 읽고, 음운 변동 현상에 유의하여 올바르게 발음하는 활동을 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반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송연우입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첫째, 반려 식물을 함께 키우고자 합니다. 기르기 쉬운 식물을 심고 모두 같이 키우면서 따뜻한 교실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학교에 건의하여 외투를 걸어 둘 공용 옷걸이를 설치하겠습니다. 무겁고 긴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 놓으면 교실이 한층 깔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 우리 반의 일꾼으로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① 밑줄 친 단어에 유의하여 발표 원고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원고 내용을 녹음해 보자.

② 친구들과 함께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밑줄 친 단어들을 바르게 발음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각 단어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적어 보자.

단어	발음	음운 변동의 종류
행복하게	[]	
반려 식물	[]	
심고	[]	
따뜻한	[]	
옷걸이	[]	
써	[]	

3. 다음 대화 내용을 참고하여,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탐구해 보자.

“와! 이제 등산로[등살로] 입구가 보인다.”

“[등살로]가 아니라 [등산로]라고 발음해야 해.”

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음 단어의 발음을 찾아보고,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써 보자.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등산로	[등산노]	ㄴ + ㄹ → () + ()
생산량	[]	
추진력	[]	

② <보기>의 단어를 발음해 보고, ①의 단어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말해 보자.

<보기>

난로

줄넘기

4. 다음 활동을 통해 구개음화의 적용 원리를 탐구해 보자.

① 다음 대화를 읽고, 제시한 학습지를 정리하면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탐구해 보자.

“우아, 붕어빵이다! 팔이 듬뿍 들어가서 맛있네. 같이 먹자.”

“고마워. 그런데 ‘팔이’는 [파치], ‘홀이불’은 [호치불]로 발음하면 되는 걸까?”

질문	‘팔이’, ‘홀이불’을 발음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날까?
↓	
탐구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ㄸ)’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각 질문에 대해 ‘예’는 ○, ‘아니요’는 ×로 표시하시오. ‘ㄷ, ㅌ’과 모음 ‘ㅣ’가 만나는가? 팔이() 홀이불() 모음 ‘ㅣ’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인가? 팔이() 홀이불()
↓	
결과	• ‘팔이’는 ‘ㅌ’과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므로 ‘ㅌ’이 구개음 ‘()’(으)로 바뀌어 []로 발음한다. • ‘홀이불’은 ‘ㅌ’ 뒤에 오는 말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로 발음한다.

② ①의 탐구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보기> 발이랑 잔디

5. (가)와 (나)의 밑줄 친 단어들을 비교해 보고,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단어와 일어나지 않는 단어의 특성을 말해 보자.

(가)

- 여기 연간 일정표가 있습니다.
- 저축을 하려면 금리를 잘 알아봐야 해.
- 하반기 영업 이익에 따라 제품 생산량이 결정되겠군.

(나)

- 군것질을 했더니 속이 니글거린다.
- 라디오 뉴스에서 미세 먼지 수치를 알려 주고 있다.
- 중학교 때 친구를 이 년 만에 만나서 무척 반가웠다.

6. 우리 주변에서 잘못 발음하는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자.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에 ○표를 하고,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써 보자.

“매콤 달콤 떡볶이, 이렇게 만들면 누구에게나 인기 폭발!”

“먹다 보면 넋이 나가는 맛!”

단어	올바른 발음	음운 변동
이렇게	[이러게/이러케/이력게]	
폭발	[폭팔/폭빨/폭발]	
넋이	[넉씨/너기]	

핵심 정리

나무아카데미